

대동문화재단 창립 30주년 기념행사 성료

강기정 광주시장 등 500여명 참석
소향·장사익·임창숙 등 축하공연
전통과 현대·한국과 세계 아울러
문화유산 미래 향한 비전 제시

30년간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묵묵히 걸어온 단체 (사)대동문화재단이 설립 30년을 맞이했다.

지난 세월, 전통의 뿌리를 지키고 새로운 꽃을 피우며 문화 나눔을 실천해 온 길을 함께 걸어와 준 모든 이들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뜻깊은 자리가 성황리에 치러졌다.

지난달 29일 광주광역시 남구 빛고를 시민문화관 대공연장에서 대동문화재단 창립 30주년을 기념한 행사가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함께 걸어온 30년, 또 다른 시작'이란 주제로 그간 아낌없는 지원과 후원을 보내준 이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자리이자 지난 30년의 성과를 조명하고 앞으로 나아갈 새로운 30년을 향한 비전을 선보이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조상열 (사)대동문화재단 대표, 김성후 (사)대동문화재단 운영이사 회 이사장,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인 북구청장, 김병내 남구청장, 이병훈 전 국회의원 등 정계 관계자들을 포함해 장사익, 소향, 김향순, 김산옥, 김웅 등 연에게 인사, 전국 국가유산 지킴이단체, 일반회원, 임직원 등 500여명이 함께했다.

행사는 △1부 설립 기념식 △2부 기념 축하공연 등으로 나눠 진행됐다. 먼저 오후 5시부터 열린 기념식은 조상열 대표의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내빈소개, 홍보영상

상영, 환영사 및 축사, 공로패 수여 순으로 이어졌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축사를 통해 "집 주변함에 담겨 있던 '대동문화' 잡지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작가 한강이 노벨문학상을 수상하기 십수년 전부터 '대동문화' 잡지에 실리는 등 진흙 속 숨겨진 보석을 캐내 우리 시민과 국민에게 미리 알려주고 문화 트렌드를 선도하는 역할을 해 왔다"며 "광주는 예로부터 수많은 예술인이 나고 자란 고장이며 예향이다. 광주를 오늘의 광주로 만드는 원동력은 대동문화재단에 있다는 것을 지난 역사가 분명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공로패 전달식에서는 이병훈 전 국회의원, 김희태 문화재전문위원, 김범환 지역 언론사 본부장, 김운태 현대자동차 지점장에게 특별공로패가 수여됐고 설립 회원에게 전달되는 공로패는 라규재, 이해준, 박종석, 박종덕, 정유철씨 등이 받았다. 우수 직원에게 전달되는 공로패는 최옥수 사진국장, 백승현 전문위원 등에게 주어졌다.

기념식 후반에 조상열 대표와 이지안 칼럼니스트가 질의응답식으로 진행한 설립 소회 토크가 눈길을 끌었다. 조상열 대표는 재지 있는 입담과 30년 역사를 고스란히 담아낸 소회로 관객들의 호응을 유도했다.

2부는 같은 장소에서 오후 7시30분부터 열렸다. '울림'이란 주제로 단순히 과거를 기념하는 자리가 아닌, 전통과 현대, 예술성과 대중성을 고루 갖춘 라인업으로 구성돼 미래를 향한 선언으로 무대를 메웠다.

전통 민속춤을 재해석해 선보인 돌움무용단을 시작으로 '조선판스타(MBN)' 1



지난달 29일 광주광역시 남구 빛고를 시민문화관 대공연장에서 (사)대동문화재단 설립 30주년 기념행사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회 우승자 국악인 김산옥이 퓨전 국악으로 흥을 돋웠다. 이어 임창숙은 국내에서 낯선 포르투갈 전통 음악 '파두'를 들려주며 무대를 지중해의 정열 속으로 끌고 갔다.

기대를 모았던 소향은 네 번째 순서로 나와 국보급 보컬로 관객들의 박수갈채를 이끌었다. '바람의 노래', 'Mistry', 'Lean on me', 'I will always love you' 등 4곡을 노래한 그는 폭발적인 가창력과 뛰어난 무대 장악력을 선보이며 기대에 부응했다. 관객들은 공연 도중 휴대폰으로 플래시를 켜며 소향의 퍼포먼스에 함께 녹아들어 즐기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다.

'울림의 반세기 소리꾼'으로 불리는 김향순도 무형유산 판소리보유자다운 깊은 울림의 무대를 선사했다. 이어 빅맨 싱어

즈는 대중음악과 오페라가 결합된 '팝페라' 무대로 역시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끌어냈다.

공연의 대미는 '우리 시대의 소리꾼' 장사익이 장식했다. '봄날은 간다' 등 대표곡들을 노래한 그의 목소리에는 인생의 회로애락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마지막에는 출연진 모두와 조상열 대표, 김성후 운영이사장 등이 함께 무대에 올라 '아리랑'을 합창하며 30주년 공연의 끝을 알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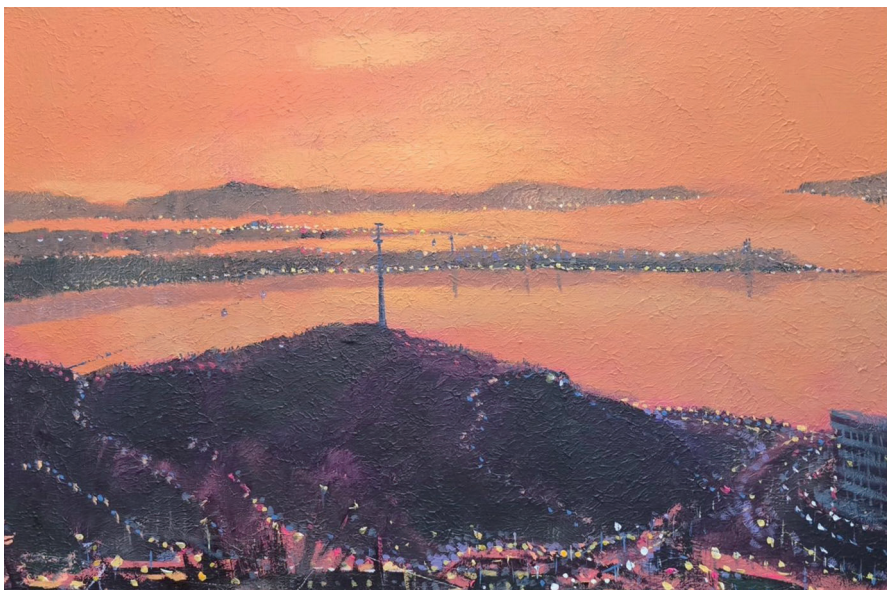
한편 대동문화재단은 1995년 조상열 대표를 비롯해 호남 지역 30여명의 청년들이 모여 설립한 단체로 그간 시민 향유 프로그램과 문화 일자리 창출 사업 등을 진행해 왔다. 문화잡지 격월간 '대동문화' 발간, 디자인 출판사업, 문화답사 및

인문학 강연, 광주문화유산돌봄센터·충장22복합문화센터·남구사직골문화센터·남구효천문화센터 등을 통해 시민 향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2019년 문화 나눔의 일환으로 전통문화 분야에 평생을 매진해 온 장인을 격려하고 후원하기 위해 '대동전통문화대상'을 제정했다.

대동문화재단은 올 하반기 '대동문화재단 30년사' 발간에 맞춰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대동문화재단 30년사' 편찬위원회는 김희태 문화재전문위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백승현 전문위원, 이동호 편집국장, 유서영 홍보팀장 등으로 구성돼 현재 60%의 진행률을 보이고 있다.

글·사진=박찬 기자 chan.park@jnilbo.com



김건국 작 '용머리 여정'.

KR갤러리 제공

김건국 10번째 개인전 '백결음의...' 화폭에 담긴 목포의 정체성

내달 31일까지 영암 호텔현대서

그림 한 점 한 점마다 목포의 풍경이 정성껏 담겼다. 남도로 겨울 여행을 하듯 관광객들을 아련한 꿈길로 이끄는 전시가 마련됐다.

목포 정체성을 캔버스에 표현하는 김건국 작가의 10번째 개인전 '백결음의 여행 - 남도 바라보다'가 다음달 31일까지 전라남도 영암 호텔현대 바이 라한 로비갤러리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남도 주변 갯벌이 주는 특별한 감성을 화폭에 담았다.

김 작가는 갯내음이 전하는 포근함과 따스한 저녁노을 아래 시시각각 다르게 펼쳐지는 갯벌의 다양한 표정을 세심하게 표현했다.

또한 '백결음의 여행'이라는 작업실에서 바라본 목포 앞바다의 풍경은, 바라볼 때마다 가슴 설레는 고향 항구의 친숙하면서도 변화무쌍한 매력으로 작품에 그대로 녹아있다.

김 작가의 작품은 끊임없이 움직이며 살아 숨 쉬는 듯한 남도의 풍경을 담고 있다.

심정택 미술칼럼니스트는 "그의 화폭에

담긴 겨울은 떠나온 곳인지, 앞으로 떠나갈 곳인지 모호하며, 오직 목포 어딘가라는 짐작만 가능할 뿐"이라고 평했다.

김 작가는 먼 이국의 명소보다 가까운 남도의 일상적 풍경을 더 소중히 여기며, 천천히 걸어 바라본 빛과 공간의 느낌을 작품 속에 섬세하게 담아낸다.

현재 김 작가는 한국미술협회, 노적봉 예술단체, 한·중서화정예작가회, 아시아 미술협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며, MOKPO ART 70 회장을 맡아 왕성한 창작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박찬 기자

광주대 호심미술관서 '제4회 교수작품전' 열려

교수·강사 20명 참여... 7일까지
디자인·주얼리·조형물 등 선보

광주대학교 제4회 교수작품전이 교내 극기관 1층 호심미술관에서 열려 눈길을 끈다.

오는 7일까지 개최되는 이번 전시회에는 문화산업대학 소속 교수 및 강사 20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연구와 강의로 쉴 틈 없는 가운데서도 끊임없는 창작활동을 통해 준비한 다양한 디자인과 패션, 주얼리, 조형물 등 수준 높은 문화예술 작품을 선보인다.

김동진 광주대 총장은 "이번 전시회가



김진숙 작 '사군자'.

광주대학교 제공

재학생들의 꿈을 더욱 키우고 미래의 예술가로서 성장하는 데 귀중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문화예술에 목마른 지역민을 상아탑이 추구하는 평생교육의 세계로 안내하는 길라잡이가 되길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박찬 기자

시민과 함께하는 손의 이야기 '아티스트 토크' 개최

'기억을 만지는 봄' 전시 연계

광주여성가족재단은 5·18민주화운동 제45주년 기획전시 '기억을 만지는 봄'의 전시 연계 프로그램으로 '아티스트 토크 : 손에 담긴 시간'을 오는 12일 오후 3시 본관 문화공간에서 개최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전시 참여 작가 이연숙과의 대화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시민들이 직접 석고를 활용해 자신의 손을 캐

스팅하는 예술 체험도 함께 마련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손의 형태를 만들며 자신의 삶과 기억을 되돌아보고, 그 안에 깃든 감정과 시간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치유적 경험을 하게 된다.

프로그램은 △전시 관람 △작가와와의 아티스트 토크 △손 캐스팅 체험 △소감 나눔 등으로 구성됐다. 이연숙 작가는 이번 전시를 통해 세월의 흔적이 담긴 어머니

들의 손을 섬세하게 재현하며, 그 안에 깃든 시대적 기억과 정서를 시각화한 바 있다.

프로그램 참여는 온라인 신청 또는 전화 접수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광주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www.gjwf.or.kr) 또는 인스타그램(@gjwomenfamily)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프로그램 문의는 전화(062-670-0534)로 하면 된다.

박찬 기자



'지역신문발전기금'
호남 유일 20년 연속 선정

인터넷 전남일보
www.jnilbo.com

모바일 전남일보
m.jnilbo.com